

트와이스 일본 정규 2집 플래티넘 인증...9연속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정규 2집 '앤드 트와이스 (&TWICE)'로 '9연속 플래티넘'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1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019년 11월 20일 일본에서 발매된 트와이스의 두 번째 정규앨범 '앤드 트와이스'는 지난 10일 현지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받았다. '플래티넘'은 25만 장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한 작품에 수여된다.



이어가고 있다.

이중 '웨이크미업'은 일본에서 공개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싱글 음반 최초로, 50만 장 이상의 누적 출하량을 기록하면 주어지는 더블 플래티넘을 인정받았다.

트와이스에게 아홉 번째 플래티넘을 안긴 '앤드트와이스'는 발매 첫 주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산 다섯 번째 1위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앨범 1위 획득 작품 수'에서 세계적인 팝 스타 머라이어 캐리와 타이 기록을 이뤘다.

이에 따라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발매한 음반 아홉 장이 빠짐없이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며, 일본에서 'K팝 대표 걸그룹'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2017년 6월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해시태그 트와이스(#TWICE)부터 10월 첫 싱글 '원 모어 타임', 2018년 2월 싱글 2집 '캔디 팝', 싱글 3집 '웨이크미업', 9월 정규 1집 'BDZ', 베스트 2집 '해시태그트와이스2', 2019년 7월 싱글 4집 '해피 해피', 싱글 5집 '브레이크스루'에 이어 '앤드트와이스'까지 '올 킬' 기록을

한편, 트와이스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 '트와이스: 시즈 더 라이트'를 선보인다. 총 8편으로 구성된 '트와이스: 시즈 더 라이트' 오는 29일 오후 11시 첫 화를 세계 81개 지역에 공개한다. 이 콘텐츠는 트와이스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리얼 다큐멘터리로 그룹의 역사를 담아냈다. 아홉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부터 치열한 성장 일기, 새로운 무대를 향한 도전, 솔직한 마음 등을 만날 수 있다.

슈퍼엠, '비욘드 라이브'공연

연합그룹 '슈퍼엠'이 오는 26일 네이버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 서비스를 통해 공연을 선보인다.

14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SM은 한국의 종합 포털 네이버와 손잡고 라이브 콘서트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욘드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인다. '비욘드 라이브'는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에 최적화된 형태의 디지털 콘서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



인다.

SM은 "서비스를 스타와 팬이 실시간 댓글, 디지털 응원봉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 소통하면서 차원 진화된 디지털 콘서트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그룹 '웨이션브이(WayV)' 루카스와 텐 등 SM 소속 가수 7명이 뭉친 팀이다. 작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한국 팀으로는 두 번째로 1위를 차지, 인기를 확인한 만큼 이번 콘서트 중계

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웨이브, NBC유니버설에 K-콘텐츠 수출

한국 국내 최대 동영상스트리밍(OTT) 기업인 '웨이브' (WAVVE)가 세계적인 미디어 회사 'NBC유니버설'에 한류 콘텐츠 수출에 성공했다.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NBC유니버설과 미디어·콘텐츠 초협력체를 결성, 전세계적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OT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막강한 동맹도 확보하게 됐다.

SK텔레콤 및 한국 지상파 3사(KBS·MBC·SBS)의 합작회사인 콘텐츠웨이브는 12일 NBC유니버설과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확장 및 웨이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을 골자로 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한류 콘텐츠 생태계를 넓히고자 하는 SK텔레콤·웨이브와 최근 북미·유럽에서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NBC유니버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NBC유니버설은 세계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 '컴캐스트'의 100% 자회사이다. TV드라마, 영화, 스포츠 콘텐츠, 뉴스를 제작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34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TV시리즈 '디 오피스', 영화 '슈렉', '미니언즈' 등을 제작하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 등을 배급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1반	찬	2무	한	3대		
신		더		4권	5위	자
반		6일	기	7장		8힘
8의	9논			10인	내	천
	11공	백	12기			13만
	14행		15운	16현	궁	전
17비	상	18구		수		반
		19내	리	막		20억
						측

5			7				8	1
	1			8	2			
		2	3				6	
7		4				9		
			2				1	8
		6		3			7	
	6	5			3			4
3	9			7				
						1	3	

